

김제농협 조합원 ‘이달의 새농민상(像)’ 수상

최장길 · 조영숙 부부 선정, 지역사회 발전 기여 공로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농협중앙회가 선발·시상하는 ‘이달의 새농민상(像)’ 수상자로 김제농협 조합원 최장길(57) · 조영숙(53) 부부가 선정되어 지난 3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90년대부터 20여년 이상 영농기술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9월 새농민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벼, 논콩, 사료작물, 축산 등 복합영농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벼 재배외에 논콩, 사료작물 등 수도작 이외에 티끌을 재배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위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진농업기술을 전파하고 협력하며 우수농축산물 생산은 물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앞장서 온 힘을 높게 평가 받았다.

또 온화한 성품으로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품앗이를 통해 지역농업인들의 일손을 돋고,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활동에도 앞장 서 왔다.

최장길씨 부부는 “새농민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주위 농업인들과 함께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의 새농민상(像)은 1965년부터 농협에서



김제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선발·시상하는 ‘이달의 새농민상(像)’ 수상자로 김제농협 조합원 최장길(57) · 조영숙(53) 부부가 선정되어 지난 3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운동 3대 정신을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선도 농업인 부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최우수 선도 농·축산인을 대상으로 매월 15 쌍의 부부를 선발·시상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산면생활개선회, 어울 한마당 문화발표회 2년 연속 최우수상

김제시 금산면생활개선회(회장 강예숙)가 김제시생활개선회 어울한마당 문화발표회에서 2년 연속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금산면에 따르면 지난 9일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함께 이룬 생활개선회 60년! 함께 여깁는 미래농촌!’을 주제로 열린 김제시생활개선회 어울한마당 문화발표회에서 농업의 고� 순간들을 모두 달려내비는 각설이 품바 공연으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금산면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의상과 소품이 관객들의 폭소를 유발했고 기성력, 관객 호응도, 무대 매너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회원들의 단합된 힘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19개 읍면동에서 정성스레 준비한 특화음식 부스에서도 청정 자연 모악산 오디로 만든 맙빙수가 더운 날씨에 순식간에 둥이 나는 등 회원들의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준래 김제시장은 “금산면 오디 맑빙수처럼 우리 김제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들을 더욱 더 많이 선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범뜻이는 이야기와 기술력으로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수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증명서 수여

장수군이 지방세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실시하고 장영수 군수, 박경준 농협은행 장수군지부장, 성실납세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4일 행정사를 수여했다.

장수군은 지난해 11월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8명과 최근 1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 납부액이 개인은 500만원 이상, 법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 2명을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을 통하여 무작위 추첨을 했다.

이번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 10명에게는 성실납세자 증명서와 더불어 장수사랑 상품권 10만원권이 지급되며, 농협은행 장수군지부에서 1년간 대출금리 인하·예금금리우대·수수료 면제 등 금융우대 혜택을, 법인에게는 1년간 세무조사 우예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앞으로도 더 많은 성실납세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선정 인원을 증원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남원서, 치안종합성과항상보고회 개최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4일 오전 9시 경찰서 4층 민인홀에서 각 과·계장과 지구대·파출소장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치안종합성과 항상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18년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남원경찰서가 추진한 치안정책의 성과와 그 결과를 검토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과 주민민족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각 기능별 특색에 맞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홍범 서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간다는 말이 있듯이 남은 성과기간 동안 남원경찰서 직원 모두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치안민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남원=길기두기자

무주署, 정보보안과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무주경찰서(서장 윤종섭) 정보보안과(과장 김갑종)는 4일 오전 정보보안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어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소통의 시간은 과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각종 행사에 안전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부서별 현안업무 토의 등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김갑종 과장은 “매주 월요일 과장을 중심으로 티타임과 함께 격의 없는 소통으로 직장생활에서는 서로에게 배려하고, 주민의 입장장을 경청하는 활동을 펼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서 순회파출소 ‘불법촬영 꼼짝마’ 예방활동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 순회파출소(소장 강학종)는 막바지 휴가철에 불법촬영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를 이용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다중밀집 장소인 공용터미널과 고속도로 휴게소, 공설운동장 화장실 등을 점검했다.

특히, 금속탐지 스캐너 등 장비로 여성 다중이용 시설인 공중화장실을 중심점검, 위험장소에 불법촬영 경고스티커를 부착하여 이용객을 대상으로 예방법과 신고요령에 대해 홍보를 실시, 앞으로도 주민 친화적 탄력순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하기로 다짐했다.

/순창=이양원기자

정읍경찰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 실시

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음란물 형태로 유통되는 영상 촬영장소가 숙박업소 등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숙박업소 대상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테마 점검을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정읍경찰서,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팀, 대한숙박업종협회 정읍시지부,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협동으로 불법촬영 전문팀장(렌즈형, 접片面형)을 활용하여 각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숙박업소 업주가 전문팀지업체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하거나 탐지장비 자체 구입으로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자체점검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에도 노력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령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cs.or.kr *전자우편 : jvcs@hanmail.net